문순태의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인상’과 소통의 방식

전흥남(한려대)

<목 차>

1. 머리말
2.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인상, 그리고 건강성
3. 노년소설의 서술 특성과 소통의 방식
4. 결론

1. 머리말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이 노년의 삶과 일상을 소재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창작한 경우가 적지 않다.[1] 작가 스스로 노년기에 접어든 만큼 ‘노년의 삶’이 작품의 소재로서 익숙한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창작의 경지도 높아져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볼 자리는 아니다. 다만,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의 노년소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삶과 사회현상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작가의 안목과 연륜이 묻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작(秀作)이 적지 않은 문학현상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

1) 노년소설의 창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작(秀作)을 발표한 경우를 든다면, 박완서, 문순태, 최일남, 한승원, 김원일, 김문수, 홍상화, 오정희 등을 들 수 있다.

www.kci.go.kr

노년소설의 주요 소재가 죽음의 문제를 비롯해 우리 삶의 본질을 환기시켜 주는 화두를 자연스럽게 등장시키는 점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다. 작가 역시 자연인으로서 노년기를 맞는다. 노년의 기준이 각기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60세 이상 혹은 65세의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연령대를 지칭할 때,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유년시절에 한국전쟁을 겪거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세대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올올이 창작품으로 형상화 했을 경우 그것이 갖는 문학적 의미와 자산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속도가 가파르게 진전되면서 노인문제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2] 따라서 우리의 역사·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노년의 삶이 안고 있는 문제를 문학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3]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측면, 사회적 소외,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노인학대 등과 관련해서 현대소설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대상화해 놓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4]

---

2)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노인복지 관련 학계나 전문가들에 의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의 일이다. 이 글은 노년소설 속에서 노인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노년의 삶에 얽힌 여러 국면을 문학의 소재로 다루는 담론 방식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노인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3) 문학적 관심을 떠나 사회적인 당위성을 지닌다. 사람이 늙지 않을 수 없으며 늙지 않는 사람도 없다. 노후의 편안한 삶은 각 개인의 능력에 달린 문제로 볼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푸대접받는 사회 풍토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노인으로부터는 삶의 경륜을 배우고, 젊은이는 도전과 패기를 일깨워 줌으로써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건강하고 미래도 밝을 것이다.

4) 노년문학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서정자의 업적을 빼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하강과 상승 그 복합성의 시학」에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현대문학』과 『문학사상』에 발표된 단편 1200편 중 54편의 노년소설을 찾아내어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것을 비롯해 노년소설 연구와

www.kci.go.kr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문순태의 소설집 『울타리』[5]에 수록된 노년소설들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6] 문순태의 소설은 노년소설로서의 성격과 조건을 두루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년의 삶에 얽힌 여러 측면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노년소설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그 지향점을 추출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소설의 범주 및 그 대상과 관련해서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년소설은 노인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작품의 소재 역시 노년의 삶에 초점을 두고, 화자도 노인들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7] 이 글에서 분석대상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점을 제공해 주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613-614면.' 〈노년소설목록〉 참조. 이외에도 최근의 노년소설 연구와 관련해서는 '최명숙, 『한국현대노년소설 연구』(경원대 박사학위논문, 2006, 2)' 및 '전흥남, 『한국현대노년소설연구』, 집문당, 2011.'가 주목에 값한다.

5) 『울타리』는 2002년 소설집 『된장』을 낸 후 5년 만에 상재된 소설집으로 2006년 정년을 맞으며 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노년소설을 포함하여 9편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소설집으로 그는 2006년 요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6)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날 터이지만, 소설집 『울타리』에 실린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느티나무와 어머니」, 「은행나무 아래서」, 「대나무 꽃 피다」 등을 통해서 문순태 노년소설의 특징들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도 소설집 『된장』에 실린 「그리운 조팝꽃」과 『생오지 뜸부기』에 실린 「대 바람 소리」도 노년소설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 글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

7) 변정화는 노년소설의 개념 규정과 그 유형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다. 먼저, 노인의 개념과 그 연령선을 규정한 다음, 노년소설의 세부 요건으로는 노년의 인물이 주요인물로 나타나야 할 것,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와 갈등이 서사골격을 이루고 있을 것,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와 의식의 고유한 국면에 대한 천착이 있을 것 등을 설정한다. 노년소설의 개념 및 유형화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변정화, 「시간, 체험, 그리고 노년의 삶」,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176-177면.' 및 '최명숙, 앞의 논문, 11-14면.' 및 '전흥남, 앞의 책, 17-24면.' 참조.

www.kci.go.kr

으로 삼고 있는 문순태의 노년소설도 이러한 유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인상, 그리고 건강성

문순태의 노년소설에 대해서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작품 속의 인물들이 건강성을 지니고 있다. 비록 육체적으로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정신은 비루하지 않는 의연함과 포용력을 지닌다. 이것은 노년의 삶에 대한 과장이나 미화가 아니라 작품 속의 인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작가 역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만큼 특별하게 노년소설을 염두에 두면서 창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노년의 삶을 소재로 옮겨간 경우로 추측된다. 작가 스스로 비교적 노년기에 접어든 시기에 쓴 소설집 『울타리』에 실린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느티나무와 어머니」, 「은행나무 아래서」, 「대나무 꽃피다」 등은 노년소설로서의 성격과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다. 소설집에 실린 절반이 노년소설에 해당하는 셈이다. 자연히 주요 등장인물이 노인들이고 이야기의 소재 역시 노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작품들은 노년소설로서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작품성 또한 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느티나무와 어머니」, 「은행나무 아래서」 등은 여성 노인을 초점화하여 노년의 삶과 소재에 서사의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느티나무와 어머니」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또 노년에 접하는 문화충격과 관련된 소재라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다문화 가족이 되는 사회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셈이다. 나의 가족은 "멕시칸 장인과 아프리카 2세 장모, 베트남 출신의 입양 딸, 드리비다와 아리안

www.kci.go.kr

혈통을 지닌 인도 출신 며느리, 한국 출신인 나와 흑인 아내, 황색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 헨리, 공통점이라고는 영어를 사용하고 모두 머리카락이 검다는 것뿐, 얼굴 모습이나 피부색깔은 물론 감정과 생각, 가치관까지도 달랐다. 한마디로 우리 가족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한 개체로서 인생의 동반자"(77)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어려움과 진통이 잘 그려져 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일 때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관계의 단절과 불화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느티나무와 어머니」를 포함하여 문순태 노년소설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관계의 단절은 당연히 차이에 대한 이해와 포용, 곧 타인의 삶에 대한 각성과 소통을 위한 섬세한 노력이 수반될 때 극복될 수 있다. 소설집 『된장』에 수록된 「그리운 조팝꽃」도 이런 맥락에서 읽혀진다. 앞에서 열거한 문순태의 노년소설들은 「그리운 조팝꽃」과 같은 유형의 작품에 해당하거니와 이것의 확대·재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고 이해와 관용을 통한 소통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분모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운 조팝꽃」은 문순태 노년소설의 원형(原型)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운 조팝꽃」의 주요 줄거리를 들여다보자. 노부부가 살고 있는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지 않고 조팝꽃이 그려진 그림이 한 폭 걸려 있다. 어린 손자들이 그 그림에 대해 물어 봐도 노부부는 함구로 일관한다. 아픈 가족사가 그 그림의 사연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둘째 아들이 조팝꽃이 그려진 그림을 화방에서 찾아오다 광주항쟁 때 죽고 만다. 그 사건을 겪은 후 가족 사진 대신에 그림을 거실에 걸어놓은 것이다. 세월이 지나 출가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노인은 그 그림을 떼어 놓고 가족사진을 찍은 사진을 걸기로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번번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간다.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찍기로 단단히 마음먹고 아들 딸 내외를 기다리는 도중에 노인은 산책을 나가려고 아파

www.kci.go.kr

트를 나서다 우연히 쓰레기통 주변에 버려진 앨범을 발견한다. 교장으로 정년퇴임할 때 친구들이 선물로 준 바로 앨범을 그 집 며느리가 내다버린 것이다. 노인은 친구가 죽고 난 후 그 앨범이 아파트 쓰레기 통 근처에서 뒹글고 있는 모습을 본 후 그날 돌연히 아내와 함께 여행길에 나선다. 대합실에서 두 노인은 사진을 찍고 아들 딸 내외와 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등지고 둘만의 오붓한 여행길에 나선다. 아내도 남편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동행한다. 이 작품은 말미에 노년의 삶과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는 의미심장한 출발로 결말을 맺는다.

> " 여행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그만 집으로 갑시다. 아이들이 기다릴텐데—"
> "애착을 버리자고 말한 건 누군데 그래?"
>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아내를 떼밀다시피 하여 순천행 버스에 올랐다. 나는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둘만의 여행을 위해서 모든 아쉬움을 접기로 했다. 나는 고향에 도착하면 먼저 조팝꽃 무더기 속에 얼굴을 묻고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그 생각을 하자 조팝꽃을 뚝배기에 수북이 담아 손으로 집어 먹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지금이 한창 조팝꽃 피는 계절이 아닌가. 나는 갑자기 조팝꽃이 먹고 싶었다.[8]

「그리운 조팝꽃」은 조팝꽃에 얽힌 가족사를 통해 노년의 삶이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배고픈 시절 조팝꽃에 얽힌 '나'와 어머니의 사연은 가슴을 아리게 하는 장면이다. 노년기에 접어든 내가 왜 갑자기 조팝꽃을 먹고 싶어졌는지는 어머니와 얽힌 사연을 통해 그 실마리가 밝혀진다.

> 나는 어머니가 조팝꽃을 쌀밥이라고 하면서 먹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다. 배가 고프거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면 뚝배기에 조팝꽃을 가득 담아 손으로 집어 먹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아냈다. 내가 초등학교 교사가

8) 문순태, 「그리운 조팝꽃」, 『된장』, 이룸, 2002, 84면.

www.kci.go.kr

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어머니의 그 조팝꽃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도 흰 쌀밥을 먹을 때마다 꾀꼬리가 이곳저곳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며 낭자하게 울어대는 모내기철, 산비탈 밭둑에 멍울멍울 피어나는 조팝꽃을 떠올리곤 한다. 그 무렵이면 밥을 먹다가도 어머니 생각에 문득문득 목울대가 후끈거려왔다. 쌀밥이 흰 조팝꽃잎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얼굴로 피어나곤 하였다.(66-67면)

「그리운 조팝꽃」은 노년기에 접어 든 나의 관점에서 참척(慘慽)을 당한 아픈 가족사와 어머니의 가난한 삶을 오버랩 시키면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듯이,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도 이런 맥락에서 읽혀질 수 있는 작품이다. 다만, 「그리운 조팝꽃」에서는 노년의 '나'가 화자이자 초점인물이라면,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는 화자인 '나'의 관점에서 어머니의 삶을 부각시킨다. 아들인 '나'의 관점으로 서술된 냄새를 모티프로 한 소설이다. 아내는 어머니가 머문 자리에 지독한 냄새가 난다며 외출을 갔다 오면 문을 열기에 바쁘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머니의 냄새는 보통 냄새가 아니어요. 두엄 썩는 냄새, 아니 제초제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냄새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생머리가 지끈거려요. 병이 나겠다니까요. 꼭 무서운 바이러스 같다고요".

내 귀에는 언제나 아내의 찌증 섞인 투정이 윙윙거리게 마련이다.

"세상에 제초제 냄새라니----"

나는 아내의 엄살이 좀 지나치다 싶었다. 하기야 온종일 어머니의 냄새에 파묻혀 집안에 들어박혀 지낸다는 것은 고역임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냄새를 바이러스와 제초제에 비유하다니(고딕표시-인용자[9])

'나' 역시 어머니의 냄새를 모르는 바 아니나 아내처럼 맡기 거북할

9) 문순태,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울타리』, 이룸, 2006, 13-14면. 앞으로 『울타리』에 수록된 노년소설을 인용하는 경우 이 소설집에 의존할 것이며, 인용은 말미에 작품명을 기입하고 인용한 쪽수만 적는다.

www.kci.go.kr

정도는 아니다. 아내의 이러한 반응에도 '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혼자서 심하다고 생각할 따름이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작품의 갈등구조는 어머니의 냄새와 아내의 냄새로 나타난다. '늙음'을 의미하는 '어머니'와 '젊음'을 의미하는 '아내' 사이에서 '나'는 갈등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어머니와 아내의 대립은 오래 전부터 사사건건 대립한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집에 있는 화초와 분재를 다 뽑아버리고 어머니가 그 화분에 고추와 가지 모종 등을 심은 것이다. 어머니에게 화초는 산이나 들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흙 한 주먹이 아쉬워'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살아온 날과 아내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10] 어머니의 냄새를 몰아내기 위해 아내는 갖은 방법을 다 쓴다. 결국 아내는 처형의 병구완을 핑계로 처형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나'는 아내를 데려오고 어머니의 냄새를 없애게 위해 어머니를 동생 집에 며칠만이라도 모셔다 드리자고 제의하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결국 '나' 역시 아내의 성화에 못 견디고 어머니와 대화중에 이 사실을 실토하고 만다.

"나 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 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느라 연신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거렸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듸.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녀."
아머니는 '절대로'라는 말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어디, 한번 맡어 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꺽으며 재촉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숟가락질만 해 댔다.

10) 최명숙, 앞의 논문, 74면.

www.kci.go.kr

“ 이놈아, **에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에미가 자식 놈들을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샌겨.**”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쓴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끝을 후벼 팠다.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고딕표시-인용자,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30면)

어머니와 대화중에 어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얼떨결에 내가 실토하고 마는데, “쓰디 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에 나는 망연자실해지며 잠시나마 냄새로 어머니에 대해 품었던 마음을 접는다. 아내는 여전히 유독 ‘나’의 어머니 냄새가 독하고 맡기 거북하다고 요란을 떤다. 당연히 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국 새로 이사한 아파트로 동생 부부가 한 달간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의 한 구석에서 보따리를 발견한다. 보따리 속에는 “녹슨 호미와, 오래된 손저울, 함석 젓 주걱, 판자로 짠 손때 묻은 되, 때에 전 흰 다후다 천의 돈 주머니, 짙은 밤색의 나일론 머풀러, 땟국에 전 앞치마 등이”(35면) 들어 있다. 또한 “검정 고무줄로 친친 묶여 있는 돈주머니를 풀고 그 속에서 손바닥만 한 수첩”도 발견된다. 화자인 ‘내’가 대학 다닐 무렵 도붓장수를 하며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작성했던 빛 바랜 외상장부 수첩인 것이다. 어머니의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보따리’, 역겨운 냄새의 근원지는 바로 그 보따리로 드러난다. 보따리 안에서 나온 자질구레한 물품들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향기임을 ‘나’는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과거의 기억이 묻은 물품들을 간직하고 사는 어머니의 행동이, 젊은 사람의 눈에는 노망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의 과거를 아는 ‘나’에게는 사람의 향기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동생한테서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전갈을 받는다. 다급한 마음에 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고향으로 발길을 돌린다. “땅의 혼령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바람처럼 훅 덮쳐왔다”(39면)는 결말

www.kci.go.kr

부분의 서술을 통해서 화자인 '나'는 자신의 근원과 뿌리가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절감한다.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가 어머니의 삶을 서술함으로써 핍진성을 갖는다.[11] 아들은 어머니의 삶을 평생 지켜보고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예전의 어머니의 향기를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질박한 삶을 공유할 수 없지만, 아들인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 국도를 달려 고향으로 향하는 아들의 모습은 부모 모시기를 번폐스러워하는 현실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3. 노년소설의 서술 특성과 소통의 방식

작가 역시 자연인으로서 나이를 먹는 만큼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 중에서 노년의 삶과 일상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발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앞에서도 서술한 바 있다. 작가 스스로 노년기에 이르러 노년소설을 발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셈이다.[12] 노년소설의 소재는 죽음의 문제를

---

11) 문순태의 노년소설에서 여성 노인이 자주 등장하고, 여성 노인의 삶이 핍진하게 그려진 경우가 많다. 한국인의 정서상 어머니의 삶 속에서 온갖 수난과 역경 및 가난이 올올이 드러난 경우를 감안한 설정이겠지만, 작가 스스로 어머니의 삶에 대한 각별한 사모의 정과 어머니의 인생관을 작품을 통해 구현한 측면과도 연관된다. 문순태의 노년소설 4편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소설집 『울타리』의 서문에서도 작가의 이러한 생각이 스며있다. 또, 2010년 10월경 구순의 노모님을 여의고 난 뒤 가진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밝힌 바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전흥남, 「문순태 선생의 서재를 찾아-'생오지'에서 문학의 향기를 맡고, 나눔의 정신을 배우다」, 『소설시대』 18호,(한국작가교수회, 평민사, 2010, 11), 65-75면 참조.

12) 노년기에 이른 작가들에게 노년소설 창작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작품의 소재는 영역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작가의 역량과 특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어야 한다. 다만, 노년기에 이른

www.kci.go.kr

비롯해 우리 삶의 본질을 환기시켜 주는 화두를 꺼낸다. 작품의 수준 또한 수작(秀作)인 경우가 많다.[13] 이런 점에서 노년소설을 주목함으로써 노년소설이 갖는 문학적 함의 나아가 문학사적 의미를 모색해 볼 필요를 느낀다. 특히 이 글에서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 작가로 주목한 문순태는 근래 들어 노년소설을 활발하게 창작했을 뿐 아니라 노년소설의 한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측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의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건강성과 소통을 위한 열림의 자세는 일반적인 노인상의 편견을 넘어 검질긴 생명력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의 순리를 좇고 순응하는 노년상을 창출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대 바람 소리」에 나오는 오동례 여사는 결혼하지 5년 만에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죽은 후 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부를 비롯해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딸을 대학원까지 마친 80세의 노인이다. 힘든 세파를 헤쳐 오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은 딸과 함께 살면서 우연히 만난 노신사, "곧고 푸른 대나무 같은 사람"(93)을 만난 뒤 반해서 부쩍 멋을 부리고 일종의 상사병(?)까지 앓는다. 오동례 여사의 신산(辛酸)한 삶을 자연의 일부에 비유한 다음과 같은 묘사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융화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 오동례 여사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푸르게 솟구쳐 뻗은 팽나무 우듬지를 쳐다본다. 푸름이 고혹적일 만큼 아름답다. 나무는 저렇듯 고목이 될수록 아름다운데 사람은 왜 노추해지는가 싶어 저절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나무껍질을 어루만져 본다. 피부는 비록 까끌까끌하지만

작가들 스스로 노년의 삶과 관련해서 혹은 노년의 작중인물 창출에 보다 핍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할 뿐이다.

13)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이 노년의 삶과 일상을 주요 소재로 해서 노년소설을 창작한 경우 비교적 젊은 작가들이 노년소설에 부합하는 작품을 쓴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서사의 핍진성과 호소력을 갖는다. 이것은 작품의 수준이나 완성도와도 자연스럽게 관련이 된다.

www.kci.go.kr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과 경건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살며시 나무 몸통에 귀를 대본다. 쏴쏴쏴 나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바람소리가 아니었다.[14]

문순태의 소설에서 인간과 자연의 어우러짐과 일체는 노년소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15] 인용문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나무와 인간, 자연과 인간의 삶이 유리되지 않거니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이 주는 지혜를 노년의 삶을 통해 그의 소설은 더욱 웅숭깊게 묘사(描寫)해 놓는다.

또한, 문순태의 노년소설은 서술자가 작중인물과 비교적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사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서술자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는 편이다.[16]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 충실하면서 서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극적이다. 「느티나무와 어머니」의 한 대목을 보자.

어차피 인생은 어두운 밤길에서 혼자만의 암중모색이 아닌가. 나 역시 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다만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뿐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느티나무와 어머니」, 98면)

---

14) 문순태, 「대 바람 소리」, 『생오지 뜸부기』 책 만드는 집, 2009, 88쪽,

15) 문순태의 소설에 나타난 자연의 생태 묘사와 인물의 성격부여 양상,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 및 융화 그리고 작품의 미학성과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문제는 별도의 지면이 요구된다.

16) 서술자의 서술상황 개입의 정도와 작품의 미학성 관계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작품의 형식미학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술문화에 바탕을 둔 사고의 표현의 특성 중에서 객관적 거리의 유지보다는 감정적이고 논쟁적인 참여의 성격이 강한 점에 주목하여 살펴볼 경우 미학적 장치와 결부되는 점도 있다. 이를테면, 염상섭의 『삼대』나 채만식의 『태평천하』의 경우 '엮음'의 양상과 구술성과를 관계를 논하면서 서술자의 서술상황의 개입문제를 구술성의 일반적 특성에 입각하여 점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임명진, 『한국근대소설과 서사전통』, 문예출판사, 2008, 171-195면.' 참조.

www.kci.go.kr

부모의 반대를 무릅 쓰고 흑인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음으로써 어머니의 원망과 관련한 나의 소회를 적시한 대목이다. 나의 생각을 드러낸 일부분으로 서술자의 개입은 소극적인 선에서 머문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포작가(the implied auther) 또는 화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작가의 생각이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다. 문순태의 소설은 전통적인 소설 문법과 형식에 비교적 충실한 편이다. 다만, 독자와의 소통을 증대시키는 한 방안으로 화자의 시선을 통해 작가의 생각이 스며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순태의 소설에 나타난 노인들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통한 소통에 무게중심을 둔다. 서사화의 방법도 서술자의 개입을 자제하면서 독자들이 공감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화자인 '나'의 관점을 통해서 노년의 인물을 관찰해 나간다. '나'를 서술 자아나 초점화자로 설정하는 방식을 동원한다. 따라서 '나'는 관찰자적 시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소설집『울타리』에 실린 노년소설 중에서 3인칭을 등장시킨 경우는「대나무 꽃 피다」1편에 그친다. [17] 1인칭 화자를 설정하되 부인물(副人物, foil character)을 통한 관찰자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서사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과거와 현재가 수시로 넘나들고 있거나 혹은 과거와 현재의 교차시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특장을 발휘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느티나무와 어머니」의 한 대목을 더 보자.

---

17)『생오지 뜸부기』에 실린「대 바람 소리」역시「대나무 꽃 피다」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3인칭 인물과 시점을 통하여 노년의 삶과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노년을 대나무(꽃)에 비유한 점도 인물의 성격창조와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저 곧고 푸른 대나무도 60년쯤 되면 일생에 딱 한 번 꽃을 피우고 죽는답니다. 꼿꼿함과 푸름을 지탱하기 위해 땅의 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향기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검불같이 보잘 것 없는 꽃을 딱 한번 피우고 죽는다고 하니,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도 자식 키워 뒷바라지 하고 사람답게 살다가 환갑 넘으면서부터는 기력이 쇠진하지요. 하기야 평생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대 바람 소리」, 90면)

www.kci.go.kr

"이번에 가면 어머니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세요. 손자인 헨리를 보면 어머니의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 않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풀어지면 다음에 우리 셋이서 함께 가기로 해요. 아니지. 헨리가 결혼하면 산드라도 데리고 갑시다."

공항에 나온 아내가 한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헨리를 보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결코 흑인 손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25년 전, 내가 경혼 승낙을 얻기 위해 아내의 부모를 만나러 갔을 때 그것을 알아차렸다.** 아내 밴자민의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하양, 검정, 갈색 다 두고 왜 하필 동양 노랑이냐면서 나를 밖으로 내쫓다시피 하지 않았던가. 밴자민은 장모님한테 피부색은 서로 달라도 피는 붉다는 말로 설득을 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헨리는 처음 만나게 될 할머니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않았다. 제 엄마한테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랐다. ---(중략)-- -헨리가 유치원에 다니던 때였다. 친구들로부터 아버지가 노랑이라고 놀림을 받았다면서 울고 왔다. 그때 헨리가 자기는 검정인데 왜 아빠는 노랑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한국의 할머니도 노랑이냐고 물었다. ---(중략)--- 그 후 헨리는 내 앞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헨리, 뭘 그렇게 생각하니?"

"아무 생각도요. 대디"

헨리는 창밖으로부터 서서히 시선을 회수하여 나를 보았다.(고딕표시-인용자, 78-79면)

인용문에서 고딕표시로 된 전후를 중심으로 과거로 이야기를 소급해 가는 과정을 보면 장면전환이 자연스러운 서술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문순태의 작품은 화자가 작중인물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여유를 남겨둔다.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방식에 몰두하는 인간상이 작품 속에서 용해되어 여러 모습으로 출몰하는 것이다.

「느티나무와 어머니」의 경우만 보더라도 새로운 가족 형태, 즉 외국인 며느리를 인정할 수 없는 어머니와 외아들인 나 사이에는 불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는 어머니와 이를 알면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아들 사이의 화해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삶에 대해

www.kci.go.kr

섬세하게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은행나무 아래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혀지는 작품이다. 타인의 삶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해와 소통의 길이 열린다. 「은행나무 아래서」에서 화자가 내뱉는 다음과 같은 대목을 통해서도 작가의 이러한 생각이 스며있다고 본다.

>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다른 것끼리 평화롭게 어울리는 것이며 궁극에는 서로가 같아지거나 하나가 아닌가 싶었다. 더욱이 인생은 시작과 끝자락에서 똑 같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거대한 조화로움의 세계가 아닐까 싶었다.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 빠른 것과 느린 것, 뜨거운 것과 차거운 것, 만남과 헤어짐, 넘침과 모자람, 절망과 희망, 생과 사, –(중략)– 등은 극단적 대립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적당하게 밀어내고 끌어당김을 계속하는 것은 아닐까. (「은행나무 아래서」, 60면)

성격이나 살아온 과정이 전현 다른 두 여성 노인이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소통의 길을 찾는 과정이 『울타리』에 실린 노년소설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그러한 여정은 타인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삶을 연결하고, 현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든다.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추억이다.[18] 추억이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남과 함께 살며 겪었던 공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체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더불어 사는 삶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문순태의 노년소설에서 각 인물의 행위를 이끌고 있는 것은 고향과 어머니 그리고 느티나무로 대표되는 유년의 기억이다. 유년시절의 체험과 이에 대한 향수가 문순태 소설의 바탕이 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18) 신덕룡, 「소통과 화해의 길 찾기」, 『울타리』 해설, 360면.

www.kci.go.kr

4. 맺음말

지금까지 문순태의 노년소설의 분석을 통해 소설에 나타난 노인상과 소통의 방식을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접근해 보았다.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이 노년의 삶을 소재로 작품화 한 경우 작품의 문학성은 물론이거니와 작품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한 문학현상으로 보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우 유년시절에 한국전쟁을 겪거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세대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올올이 창작품으로 형상화 했을 경우 그것이 갖는 문학적 의미와 자산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닌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속도가 가파르게 진전되면서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본고에서 문순태의 노년소설에 주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앞에서 살펴본 문순태의 소설은 노년소설로서의 성격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작품 속의 노인들은 대체로 건강성과 검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격동의 현대사를 거쳐 오는 동안 여러 형태의 트라우마(trauma)[19]를 안고 있건만 서로의 상처를 들춰내 덧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인간성을 복원하려는 건강성을 지닌다. 그렇다고 문순태의 작품 속에 나타난 노인상은 노년의 삶을 과장하거나 미화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년의 삶을 소재로 하면서 때로는 진솔하게 노년의 삶이 안고 있는 여러 형태의 소외와 밀려남, 무력감[20]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양한 노년상의

19) 문순태의 소설 속에는 여러 형태의 트라우마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광주항쟁'과 관련된 작품들로는 「일어서는 땅」, 장편 『그들의 새벽』, 「최루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소설들은 '광주'라는 서사공간을 죽음과 삶이 혼재하는 장소, 트라우마와 죄의식의 생성 공간, 윤리적 분노와 저항의 공간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심영의, 『5 ·18기억과 그리고 소설』, 한국문화사, 2009, 182-196면 참조.

www.kci.go.kr

설정을 통해 노년의 삶이 안고 있는 다양성과 다층성을 제대로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이것은 노년소설의 한 유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니와 노년소설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데에도 유익한 점을 지닌다. 과거 노년소설의 모습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문순태는 근래 들어 노년소설을 활발하게 창작해 왔을 뿐 아니라 노년소설의 지향점을 제대로 짚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글은 문순태의 노년소설에 한정해서 노년소설을 분석한 제약점이 있지만, 그의 소설이 노년소설의 가능성과 지향점의 단초와도 연결될 수 있음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청준, 한승원, 박완서, 최일남, 오정희, 홍상화, 이청해의 노년소설들로 분석의 대상을 넓혀 조명해 간다면, 현대 한국노년소설의 가능성과 문제성 및 전망을 추출하는데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별도의 지면을 통해 서술하게 될 것이다.

<국문초록>

이 글은 문순태의 소설집 『울타리』에 수록된 노년소설들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순태의 소설은 노년소설로서의 성격과 조건을 두루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년의 삶에 얽힌 여러 측면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노년소설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그 지향점을 추출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노년소설의 범주 및 그 대상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년소설은 노인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작품의 소재 역시 노년의 삶에 초점을 두고, 화자도 노인들이 설정된 경우가

20) 노년에 닥쳐오는 무력감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김경은, 「노인 무력감의 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및 '박영주, 「여성노인의 무력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노년학연구』, 한국노년학연구회, 2001, 78면.' 참조.

www.kci.go.kr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이 글에서는 문순태의 노년소설의 분석을 통해 소설에 나타난 노인상과 소통의 방식을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접근해 보았다.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이 노년의 삶을 소재로 작품화 한 경우 작품의 문학성은 물론이거니와 작품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한 문학 현상으로 보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우 유년시절에 한국전쟁을 겪거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세대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올올이 창작품으로 형상화 했을 경우 그것이 갖는 문학적 의미와 자산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닌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속도가 가파르게 진전되면서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이 글에서 문순태의 노년소설에 주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문순태의 소설은 노년소설로서의 성격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작품 속의 노인들은 대체로 건강성과 검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격동의 현대사를 거쳐 오는 동안 여러 형태의 트라우마(trauma)를 안고 있건만 서로의 상처를 들춰내 덧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인간성을 복원하려는 건강성을 지닌다. 그렇다고 문순태의 작품 속에 나타난 노인상은 노년의 삶을 과장하거나 미화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년의 삶을 소재로 하면서 때로는 진솔하게 노년의 삶이 안고 있는 여러 형태의 소외와 밀려남, 무력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양한 노년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노년의 삶이 안고 있는 다양성과 다층성을 제대로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노년소설의 한 유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니와 노년소설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데에도 유익한 점을 지닌다. 과거 노년소설의 모습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순태의 소설은 근래 들어 노년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비교적 활발하게 창작해 왔을 뿐 아니라 노년소설의 지향점을 제대로 짚고 있다는

www.kci.go.kr

점에서 문제성을 지닌다.

주제어: 노년소설, 서술성, 문순태, 트라우마, 문학적 함의, 노년문제, 노화연구, 담론, 시의성, 내포작가.

www.kci.go.kr

<참고문헌>

김윤식 김미현 엮음『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문순태,『된장』, 이룸, 2002.

문순태,『울타리』, 2006.

문순태,『생오지 뜸부기』, 책만드는집, 2009.

김경수,「쓸쓸한 그리고 인간적인－노년소설의 가능성에 대하여」『넥스트』 34 호, 2006.

김윤식,「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류종렬,「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한국문학논총 50』, 2008.

박영주,「여성노인의 무력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한국노년학연구』 제10권, 한국노년학연구회, 2001.

변정화,「시간, 체험, 그리고 노년의 삶」,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서정자,「하강과 상승 그 복합성의 시학」,『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우한용, 한국현대소설 담론 연구, 삼지원, 1996.

양진오,「해원하는 영원과 죽어가는 노인들」,『전망의 발견』, 실천문학사, 2003.

임명진,『한국근대소설과 서사전통』, 문예출판사, 2008.

임춘식,『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풍출판사, 1991.

전흥남,『한국현대노년소설연구』 집문당, 2011.

전흥남,「문순태 선생의 서재를 찾아-'생오지'에서 문학의 향기를 맡고, 나눔의 정신을 배우다」,『소설시대』 18호, 한국작가교수회, 평민사, 2010.

정동호,「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 정동호 외,『철학, 죽음을 말하다』,

www.kci.go.kr

산해, 2004,
장미영, 「고령화시대의 선진적 노년문화 조성을 위한 소설독서교육 방안」, 『국어문학』 제41집, 2006,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04.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한국노년학회 편, 『노년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0.
황국명, 「한국소설의 말년에 대한 사유」, 『오늘의 문예비평』, 2008년 가을호, 통권30호,
시몬드 보부아르, 홍상희 박혜영 옮김, 『노년』, 책세상, 2002.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the old people and the way of communication appeared in old age novels of Mun Sun-tae

Jeon, Heungnam

This study focused on Mun Sun-tae's novels to find out the value and the prospect of the old age novel. While it might be open to dispute where to draw the line of old age novel, it can be narrowed down to novels wherein an old man is the leading character and which deal with the lives of the old. A writer himself gets old as a natural person. Some aging writers who have reached their senescence, have released noticeable novels about the everyday lives of the old. In this case, the novels wherein the writers themselves aging as natural persons wrote about the lives of the old, proved to be high-quality. As an old age is the time for arranging one's life, the old age novel broaches death and arouses the fundamental nature of our lives. In this sense, it is worth researching on literary implications and meanings of literary history of the old age novel.

Novels of Mun Sun-tae are especially noteworthy. Although ther is a limitation that this study is focused only on novels of Mun Sun-tae, it is because his novels clearly connect with the possibility and the aim of old age novels. It seems that further study on works of the old age novel such as works of Lee Chung-jun, Kim Won-il, Oh Jeong-hui, Park Wan-seo, would

www.kci.go.kr

give some implications about the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old age novel.

【Key words】: The Old Age Novel, Narrativity, Mun Sun-tae, Trauma, Literary Implication, Issues of Old Aged, Study of Senescence, Discourse, Laterness, Timeliness, The implied auther

전흥남
한려대학교 교수
(545-704)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chn0075@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2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